10.15686/fkl.2024..61.10 OPEN ACCESS

2010년대 이후 장애 여성 소설[1]에 나타난 자기 돌봄의 정치성

-김미선, 공선옥, 김초엽을 중심으로

박찬효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객원연구원

목차

1 재난으로서의 장애 넘기와 자기 돌봄
2 '여성적 윤리'로서의 돌봄 비판과 자기서사의 저항성
: 김미선,『버스 드라이버』
3 자기 돌봄의 인식과 취약한 존재의 상호의존적 연결
: 공선옥,『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
4 개인 경험의 존중과 '함께-되기'의 가능성 : 김초엽,『므레모사』
5 결론 : 장애 관념의 재구성과 존재 간의 연결을 위하여

1 전지영은 일반적으로 장애인이 창작한 예술을 의미하는 '장애인예술' 넘어, 장애에 대한 성찰과 철학적 사유를 담은 '장애예술'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장애예술'이 적합한 표현이라는 것이다(「장애예술과 장애인예술의 개념 논의-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활동을 중심으로」,『한국예술연구』제32호,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2021, 195-212쪽).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장애 여성 소설'을 '기존의 장애와 장애 여성의 존재성을 성찰하는 문학'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이 논문의 게재료는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에서 지원 받았음.
이 논문은 제1회 현대문학자대회 포스터 발표「2010년대 이후 여성소설에 나타난 장애 재현의 전복성」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연구임.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2010년대 이후, 김미선, 공선옥, 김초엽의 장애 여성 소설이 '자기 돌봄'을 지향하면서 그동안 무성적 대상, 역사적 고통이 은유화된 몸, 비극의 장소로 규정된 장애 여성의 존재성을 넘어서고 있음을 분석하는 것이다. 여기서 자기 돌봄이란 나르시시즘과는 변별되는 것이다. 자기 돌봄은 사회로부터 존중받지 못한 자신을 돌보기 위해 자기주장을 하고, 관계 내에서 자신 역시 돌봄의 대상이 돼야 함을 요구하며, 일률적인 사회의 돌봄 체계에서 벗어나 자신을 위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래서 장애에 대한 기존의 사유를 전환하고 연약한 돌봄의 공동체를 구축하는 기반이 된다.

본고에서는 취약한 개인의 존재성을 재구성하는 '자기 돌봄'의 정치성을 다음의 세 가지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우선, 김미선은 『버스 드라이버』에서 장애 여성을 무성적 대상으로 만들고, 장애 남성을 유능한 노동자로 성장시키는 '가부장제에 종속된 여성의 돌봄'을 비판한다. '자기서사'를 바탕으로 장애 여성에게 부여된 한계에 맞서 자기 긍정에 이른다는 점에서 자기 돌봄의 저항성이 나타난다. 공선옥의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는 돌봄의 주체로 상정된 비장애 여성이 자신도 돌봄의 대상이 돼야 함을 인식하면서 장애와 비장애는 시혜적 관계에서 벗어난다. 자기 돌봄이 가능해지면서 취약한 존재들이 상호의존적으로 연결되며, 그 결과 장애 여성은 마을 여성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자 숭배해야 할 타자가 된다. 마지막으로 김초엽의 『므레모사』는 장애 존재가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선택한 삶의 방식을 존중해야 함을 강조한다. 자기 돌봄을 실천하면서 비인간과 인간이 연결되며, 서로 잘 지낼 수 있기 위해 관계 맺는 '함께-되기'가 가능해진다. 그럼으로써 장애와 비장애의 위계는 해체되고, 폭력적 치유 논리가 비판된다.

국문핵심어: 장애 여성, 자기 돌봄, 자기서사, 상호의존, 함께-되기, 김미선, 공선옥, 김초엽

1 재난으로서의 장애 넘기와 자기 돌봄

‘장애’는 단순히 신체나 정신적 손상을 일컫는 개념이 아니다. 올리버는 장애가 손상된 몸을 가진 사람에게 부과되는 제도적 차별, 접근권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환경, 분리 교육, 노동 배제에서 기인된 개념으로 보았다.[2] 그런데 완벽하지 않은 신체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욱 치명적이다. 외모가 가치가 되는 문화 속에서 신체적으로 불완전한 여성은 매력이 없고, 손상된 다리는 무력함, 불쌍함이라는 불구자의 은유를 만들어낸다.[3] 그래서 장애 여성은 남성의 반대인 동시에 비장애 여성과도 다른 존재로 간주된다.[4]

그런데 2010년대 이후의 장애 여성 소설은 장애를 재난으로 재현하는 관습을 탈피하는 시도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장애 여성의 욕망이 전면화되면서 장애에 대한 관념이 변화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 김미선의 『버스 드라이버』(2013), 공선옥의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2013), 김초엽의 『므레모사』(2021)를 주목할 수 있다. 이 소설들은 공통적으로 장애를 비극으로 간주하는 시선을 비판하며, 비장애와 장애의 위계를 해체하는 데 돌봄 윤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겪게 되는 힘겨움과 더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관계가 시혜적일 수밖에 없다는 편견 등으로 인해 장애 담론에서는 필연적으로 ‘돌봄’이 주요 문제가 된다. 이러한 ‘돌봄’은 최근 페미니즘 문학장에서도 화두였다. 김미현은 타자 중심의 담론을 심화할 때 부각되는 것이 ‘돌봄’ 윤리이며, 2010년대 들어 공감 등의 가치가 위협받는 ‘돌봄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자기 돌봄’에서 찾는다.[5] 또한 2015년 페미니즘 리부트를 전후하여, 그리고 팬데믹이란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돌봄의 미래를 상상하는 SF 소설이 발표되었다.[6]

---

2 이지훈, 「한국 5·18소설의 장애 재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18-19쪽.

3 수전 웬델, 강진영·김은정·황지성 역, 『거부당한 몸』, 그린비, 2013, 93쪽.

4 로즈메리 갈런드 톰슨, 손홍일 역, 『보통이 아닌 몸』, 그린비, 2015, 55쪽.

5 김미현, 「2010년대 여성소설에 나타난 ‘자기 돌봄’의 윤리」, 『한국문예비평연구』 63권,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9, 64-67쪽.

6 안서현, 「여성 SF가 사유하는 돌봄의 익숙한 미래」, 『여성문학연구』 57호, 여성문학학회,

기존의 가부장적·자본주의적 가치와 연결된 돌봄 행위만으로는 현재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제기되는 것이다.

비극적 재난으로 간주되는 장애의 경우도 마찬가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아직까지도 다양한 분야에서 자선, 치료, 회복의 대상으로 한정되는 장애 관념을 전환하기 위해서 기존과는 다른 돌봄 논리가 요청된다. 본 연구는 '자기 돌봄'[7]에 주목하며, 관련해서 캐롤 길리건과 푸코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길리건은 임신중절 여부를 고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돌봄 윤리가 여성의 일방적 희생으로 귀결되지 않음을 깨닫는다.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할 때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없음을 인지하면, '자신 역시 돌봄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인간 상호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며, 관계 안에 놓인 모든 존재가 돌봐져야 한다는 윤리에 이른다.[8] 길리건의 관점에서 진정한 돌봄은 '자기 돌봄'을 전제하게 된다. 한편, 푸코는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명제를 '우리'를 돌보기 위해 '나'를 돌보는 기술로 해석한다. 남을 돕기 이전에 자신의 지혜를 돌보는 의미로서의 자기 돌봄은 공동체 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덕목이라 할 수 있다.[9] 푸코는 "새로운 유형의, 새로운 종류의 자기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궁리하는 것"[10]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그럼으로써 기존의 관습을 비판적으로 사유하고 저항하는 힘을 갖

2022, 282-301쪽.

7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자기 돌봄'의 개념은 나르시시즘과는 다르다. 홍단비와 심재욱은 미디어 등의 시스템에서 비롯된 '자기애의 과잉'에서 벗어나기 위해 현대인에게 필요한 것이 '자기 돌봄'이라 주장한다. 그리고 푸코의 논의를 빌려 자기 돌봄의 목적이 자신의 삶 속에서 자기와 관계 맺을 수 있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계발하고 실천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 홍단비·심재욱, 「김유정 문학의 자기 서사와 자기 돌봄의 윤리」, 『비평문학』 제90호, 한국비평문학회, 2023, 424-426쪽.

8 김은희, 「캐롤 길리건-정의 윤리를 넘어 돌봄 윤리로」, 『현대페미니즘의 테제들』, 연구모임 사회비판과대안 공저, 사월의책, 2016, 130-132쪽.

9 이연숙, 「'퀴어-페미니스트의 '돌봄' 실천 가이드'를 위한 예비적 연구」, 『문학동네』 29호, 2022, 210-211쪽.

10 미셸 푸코, 오트르망 심세광·전혜리 역, 『비판이란 무엇인가? 자기수양』, 도서출판 동녘, 2016, 123쪽.

게 되기 때문이다.[11] 더불어 푸코는 “자기 돌봄이란 언제나 자기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행위를 수반”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개인을 보호하려는 국가 권력이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기에 개인의 선택권을 강조한 것이다. 돌봄이 국가와 같은 체제에서만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12]

즉, 길리건은 자기 돌봄을 바탕으로 돌봄 책임을 여성에게만 부여하는 가부장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관계 안의 존재가 모두 돌봐져야 한다는 상호의존성을 지향한다. 그리고 푸코는 국가와 같은 권력이 개입하면서 개인을 존중하지 못하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국가적 돌봄 이전에 자기 돌봄이 중요함을 제시한다. 이러한 개념은 장애인에 대한 돌봄이 시혜성이나 정상적 회복에만 한정되는 것을 비판하는 기반이 된다. 그래서 돌봄의 정당성을 장애인 개인의 요구에 맞추면서 기존의 장애 재현과는 다른 문학적 형상화를 가능케 할 것이다.

본고는 이와 같은 길리건과 푸코의 ‘자기 돌봄’ 개념에 주목하면서 다음의 세부 관점을 더해 김미선, 공선옥, 김초엽의 작품을 분석하려고 한다.

첫째, 김미선은 「그녀의 이중생활」(1994)로 『동서문학』 신인상을 받으며 등단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날」(1997), 『버스 드라이버』(2013), 『너도 꽃나무』(2019)를 발표했으며, 장애인 인권 운동가로 활동했다. 기존 연구는 특히 『버스 드라이버』를 주목하고, 김미선을 비장애인 중심의 성 담론을 해체한 소설가로 평가한다.[13] 여기서는 더 나아가 김미선이 자신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소설 쓰기를 함으로써 장애 여성을 무성적 대상으로 간주하고, 장애 남성을 유능한 노동자로 성장시키는 돌봄을 비판한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때, “남이 요구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느끼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는 측면에서 자기 돌봄의 윤리와 자기 서사가 만나게 된다.”[14]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마주하면서 느낀 울분

11 위의 책, 114-115쪽 내용 참조해 서술.

12 김성희, 「돌봄의 선언과 자기돌봄-돌봄 이론의 정치적 전회와 비판이론의 윤리적 전회」, 『비교문학』 89권, 한국비교문학회, 2023, 81-83쪽.

13 김세령, 「한국 장애인 문학의 새로운 지평-김미선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59호, 현대소설학회, 2015; 심영의, 「타자(other)로서의 장애인 문학」, 『민주주의와 인권』 제14권 2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4; 차희정, 「(해설)억압되고 배제된 욕망의 파기」, 『버스 드라이버』, 개미, 2013.

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던 김미선의 작품은 소설가의 자질 문제로 폄훼되는 경향이 있었다.[15] 그러나 부당한 대우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자기 돌봄의 계기가 된다. 그래서 김미선의 『버스 드라이버』에 나타난 자기서사를 탐색하는 것은 기존 관념에서 벗어나 장애 여성의 존재성을 새롭게 구성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둘째, 공선옥은 「씨앗불」(1991)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목마른 계절」(1993), 『시절들』(1996) 등 오월 광주와 맞닿은 소설에서 동시대 여성들의 상흔을 발견한다.[16] 그런데 그녀의 작품은 장애인이 주요 인물로 등장함에도 본격적인 장애 관련 논의는 최근에 시작되었다. 김은정은 역사에서 발생한 폭력을 장애로 은유화하는 것이 장애의 의미를 약자가 피해를 입은 상태로 제한하는 효과가 있음을 비판한다.[17] 이지훈 역시 5·18을 배경으로 한 임철우 등의 소설에 나타난 장애가 일련의 비극적 상황을 설명하는 수단이 되면서 장애 인물의 몸과 삶이 '비정상적'인 의미로 체현됨을 비판한다. 그러면서 공선옥의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가 장애 여성의 '노래'에 응답함으로써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지 않는 공동체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 주목한다.[18] 그런데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응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비장애 중심의 세계관을 해체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가 길리건이 주장하듯이 관계 내의 존재가 '자기 돌봄'의 중요성을 인식할 때, 상호 의존성에 입각한 돌봄이 가능해짐을 분

---

14 김미현, 앞의 논문, 76쪽.

15 허구의 소설을 문학장르의 정점으로 간주하는 근대적 문학 관습은 자전적 소설, 일기 등을 주변적 문학이나 하위문학으로 서열화했다. 그러나 박혜숙은 오히려 이러한 양식이 소외된 존재의 자기 표현을 가능하게 하며, '자기서사'는 주변적 경험의 재현을 통해 문학 및 현실 영역에서의 중심-주변 관계를 해체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박혜숙, 「여성 자기서사체의 인식」, 『여성문학연구』 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8-9쪽).

16 류수연, 「돌봄과 노동의 경계에 선 '엄마', 다시 읽는 공선옥」, 『비교한국학』 29권 1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21, 41-42쪽.

17 김은정, 강진경·강진영 역, 『치유라는 이름의 폭력』, 후마니타스, 2022, 63쪽.

18 이지훈, 앞의 논문, 83-120쪽, 157-158쪽. 김효숙도 오월 광주 경험으로 장애 여성이 된 정애의 말이 남성/여성, 강함/약함의 이원성을 해체하는 것으로 분석한다(「공선옥 소설의 노래 수용과 자아발현 양상 고찰-『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를 중심으로」, 『비평문학』 제62호, 한국비평문학회, 2016).

석하고자 한다.

셋째, 김초엽은 「관내분실」(2017)로 등단했으며, 장애가 주제인 작품으로 「마리의 춤」(2019), 「로라」(2019), 「캐빈의 방정식」(2020) 등이 있다. 김초엽을 포함한 여성 SF에 나타난 장애를 분석한 연구는 공통적으로 인간의 정상성에 대한 물음을 전제하며, 비인간과 인간의 경계에서 벗어나는 사유를 탐색한다.[19] 본고는 기존 연구의 성과를 수용하면서 이에 더해 그동안 덜 주목되었던 김초엽의 『므레모사』(2021)를 살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장애 존재가 진정한 평온을 쟁취하기 위한 자기 돌봄을 선택함으로써 폭력적 치유 논리가 해체되는 양상을 분석할 것이다. 한편, 이 작품은 자연과 인간이 연결된 공동체의 가능성이 형상화되는데, 이는 해러웨이의 '함께-되기' 사유가 나타난 것이다. 이현재는 함께-되기가 길리건의 관계적 자아를 기반으로 한 돌봄을 계승한 것이라 주장한다. 길리건은 돌봄을 정상적 존재가 비정상적인 존재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얽힌 존재들이 연결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함께 되어가는 실천으로 개념화했다. 그리고 해러웨이는 이러한 정신을 계승하면서 돌봄 행위자의 계보를 비인간 존재에까지 확장했다는 것이다.[20] 『므레모사』는 해러웨이가 부각한 '비인간', 즉 장애 존재와 자연이 서로의 바람에 응답함으로써 국가적·의료적 돌봄 논리를 넘어서는 풍경이 형상화된다. 본고는 이러한 지점이 어떻게 가능해졌는지 고민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2010년대 이후 장애 재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서사가 SF뿐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서 구축되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을 무성적 대상, 역사의 고통이 은유화된 몸, 재난과 비극의 장소로 규정하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한 인식 틀로서 '자기 돌봄'에 주목하겠다. 즉, 자기 돌봄이 기존의 가부장제에 종속된 여성의 돌봄에 저항하고(김미선), 상호의존적 돌봄으로 나아가며(공선옥), 자기를 돌보기 위한 개인의 선택을 중시하면서 '함께-되기'가

19 김윤정, 「김초엽 소설에 나타난 포스트휴머니즘과 장애」, 『여성문학연구』 5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1; 최병구, 「김초엽 소설에 나타난 테크놀로지와 시간정치」, 『인간·환경·미래』 제29호,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2022; 황지선, 「장애-사이보그-불화의 상상력과 타자-되기의 윤리학」, 『한국문예창작』 제21권 제3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22.

20 이현재, 「도나 해러웨이의 포스트휴먼 페미니즘과 난잡한 돌봄 공동체」, 『한국여성철학』 제37호, 한국여성철학회, 2022, 42쪽.

가능해지는(김초엽)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비장애중심주의를 넘어선 장애 재현의 전복적 서사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럼으로써 장애에 대한 기존의 사유를 전환시키고 연약한 돌봄의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자기 돌봄의 정치성을 확인할 것이다.

2 '여성적 윤리'로서의 돌봄 비판과 자기서사의 저항성 : 김미선,『버스 드라이버』

김미선은 초기 작품에서 장애 소설가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표현하지 않았다. 뻔한 자기 이야기로 무시당할 것이기 때문에 장애와 상관없는 서사로 먼저 성공한 뒤 그 주제를 본격화하고자 했다.[21] 그런데 장애 부부의 이야기를 담은 「눈이 내리네」가 문학계에서 호평을 받자, 「집으로 돌아오는 날」(1997)에서 장애 여성으로서 느꼈던 좌절 등을 서사화한다. 그러나 이 소설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중견 작가에게 "개인적인 장난"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이후 다시 장애를 주제로 삼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22] 「집으로 돌아오는 날」에서 '나'는 20여 년 만에 열린 동창회에 참석한다. 그녀는 외모가 아름다운 친구가 미니 스커트를 입은 모습에, 그리고 자신을 제외하고 소모임을 지속했던 친구들 속에서 소외를 느낀다. 그런데 '나'는 장애에 대한 편견의 시선을 회피할 뿐, 무엇 때문에 우울해졌는지 적극적으로 발화하지 못한다.

후에 김미선은 에세이『이 여자가 사는 세상』(2005)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 여성이고 장애인이라는, 이 사회 속에서 전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외형적인 '나'가 존재하고 있다면, 동시에 어떤 조건과도 상관없이 생명의 본능적인 기쁨과 완전함을 꽃피우고 싶어하는 내면의 또 하나의 '나'도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공존해 왔던 것입니다. 순수하고 지고한

21 김세령, 앞의 논문, 227쪽.
22 김미선,『이 여자가 사는 세상』, 나무의 꿈, 2005, 110-116쪽.

> 본래의 모습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외형적인 조건들이 언제나 더 큰 힘을 발휘하여 열등한 인간, 결코 정상이 될 수 없는 장애인, 여성도 남성도 아닌 무성의 존재로 저를 휘둘러왔습니다. (…)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조건에서라도 자신을 최대한 아름답게 실현시키고자 하는 욕망을 포기하지 않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행위인지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서문」, 『이 여자가 사는 세상』, 5-6쪽)

위의 서문을 통해 김미선은 장애 여성을 비정상으로 간주하는 당대 사회에 저항하고자 했으나 초기 작품에서는 자신의 의도를 제대로 서사화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후, 자전적 소설 『버스 드라이버』(2013)에서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탐구하는 '자기서사'[23]의 글쓰기를 적극적으로 시도한다. 김미선은 이 작품이 내 몸의 "살과 뼈를 그 모양 그대로 세상에 인정받고 싶어 주야로 몸살을 앓아대던 그런 때"[24] 쓰여졌다고 회고한다.

로즈메리 갈런드 톰슨은 장애 여성의 몸이 성과 무관하다는 생각이 장애 여성 스스로 여성성을 소멸시키는 '무성적 대상화' 상황에 직면하게 함을 문제삼는다.[25] 그런데 김미선은 『버스 드라이버』에서 함구할 것을 요구받았던 장애 여성의 성 욕망을 전면화한다. 주목할 점은 그 배경에 기존의 돌봄 방식에 대한 저항이 있다는 것이다. 길리건은 "여성적 윤리(feminine ethic)"로서의 돌봄 윤리와 "여성주의적 윤리(feminist ethic)"로서의 돌봄 윤리를 구분하면서 여성에게만 돌봄 역할을 한정하는 전자의 윤리를 비판한다.[26] 김미선은 '여성적 윤리'의 돌봄 논리 안에서 장애 여성이 무성적으로 양육되고 있음을 인식했고, 그녀가 성 욕망

---

23 장영은은 자기 자신을 설명한 수필, 일기, 편지, 대담, 자전적 소설 및 자서전 등의 다양한 서사 양식을 자기서사로 설명한다. 또한 필립 르쥔의 『자서전의 규약』(윤진 역, 문학과지성사, 1998, 8-10쪽)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자전적 소설을 저자 자신이 주인공과 동일인임을 부인하거나 자기의 이야기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독자가 작가와 주인공이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허구의 텍스트로 정의한다(장영은, 「근대 여성 지식인의 자기서사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1-2쪽).

24 김미선, 「작가의 말」, 『버스 드라이버』, 개미, 2013, 5쪽.

25 로즈메리 갈런드 톰슨, 앞의 책, 49쪽.

26 김은희, 앞의 책, 147쪽.

을 적극적으로 발화하는 행위 이면에는 가부장 질서에 종속된 돌봄을 비판하는 의도가 있었다.

김미선은 에세이집『이 여자가 사는 세상』에서 장애인 남편과의 결혼 생활과 함께 자신의 어머니와 시어머니의 자녀 돌봄에 대해서도 회고하고 있다. 김미선이 첫돌이 지났을 무렵 소아마비에 걸리자,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가정을 이루고 직장을 갖는 보통의 삶을 살지 못할 것이라 걱정했다. 어머니는 딸에게 2차 성징이 나타나자 넉넉한 품의 옷을 입혔고, 놀람과 시름에 잠겨 딸의 생리대를 만들었으며, 대학 공부가 필요 없다고 간주했다. 김미선은 어머니의 부정적 반응 때문에 "성이 없는 무성의 인간"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거나 가출하듯이 집을 나와 진학할 수밖에 없었다.[27] 반면, 그녀의 시어머니는 아들이 자정을 넘어 집에 오더라도 항상 새 밥을 지어 먹였고, 잘 걷지 못해서 더러워진 신발을 바꿔 신기기 위해 하얀 운동화를 늘 새로 준비했다. 남편은 "전지전능하게 돌봐 주시던 어머니와 35년을 같이 지내다가" 결혼을 했다. 김미선은 남편이 직업적으로는 유능했으나 이밖의 다른 일은 많은 부분 아내에게 의지했음을 고백한다.[28] 시어머니의 돌봄 노동이 장애를 지닌 며느리에게 이어지는 것이다.

두 어머니는 모두 장애가 있는 자녀의 몸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가정했으며, 성별이 다른 자녀들은 각기 가부장제가 뒷받침하는 특정한 형태의 여성성과 남성성을 갖도록 양육되었다고 할 수 있다.[29] 어머니는 장애를 극복시키기 위한 돌봄을 제공한 것이었으나, 자녀의 관점에서는 고통스럽거나 불합리한 배려였다. 김미선은『버스 드라이버』에서 두 어머니들의 돌봄이 장애인에게 어떤 결과를 야기했는지 서사화한다. 장애 여성을 무성적 대상으로 간주하여 '혼자 사는 법'을 가르치는 억압적 양육을 하거나, 희생적인 어머니의 치유 노동으로 장애인 아들을 생산적 노동자로 변화시키는 대리 치유[30]의 양상이 형상화되고 있다.

『버스 드라이버』에서 김미선의 분신인 여주인공 봉애는 어머니에게 편물을 만들며 살아가는 "등이 굽고 키가 작고 삐쩍 말라빠진 늙은 처녀"(94)의 삶을 제

27 김미선, 앞의 책, 22쪽, 53쪽, 261-262쪽.
28 위의 책, 82-85쪽, 90-94쪽.
29 김은정, 앞의 책, 367쪽 내용 참조해 서술.
30 위의 책, 172쪽.

안받는다. 자신의 딸이 생계라도 유지하기를 바란 것이나, 봉애는 어머니의 뜻을 거부하고 결혼을 선택한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을 하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백화점 셔틀버스 기사와 가까운 사이가 된다. 기혼여성인 그녀는 얇은 블라우스를 입은 자신을 쳐다보는 버스 드라이버의 시선을 느끼고 그와 더 가까워지고자 한다. 반면, 시어머니는 사고로 아들의 하반신에 큰 상처가 나자, 새벽마다 불린 쌀을 입안에서 반죽하여 암죽을 만드는 등 지극 정성으로 돌본다. 그러나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그녀는 그 일로 일흔 즈음 치아가 모두 무너지고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다. 남편은 어머니 덕분에 직업적으로 능력은 있으나, 가족에게 지나치게 심적인 의지를 하게 된다. 그리고 봉애는 자신이 남편의 육체에 관심을 갖는 것을 남편이 불편하게 여기는 상황이 버겁다.

같은 장애인이었지만, 봉애는 남편과 다르게 스스로 존중감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성장했고,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버려졌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도 있다. 그녀의 어머니는 전생에 죄가 많아 장애아를 낳았다고 생각했으며, 딸과 함께 외출하는 것을 꺼리기도 했다. 김미선이 『버스 드라이버』에서 자기서사를 구성한 것은 자기 긍정에 도달하기 위한 기획이자, 기존의 돌봄 논리를 거부하면서, 장애여성에게 부여된 한계를 해체하고자 한 것이다.

봉애는 장애 여성이 사람들에게 쉽게 버림받을 것이라는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 결혼을 선택한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가 뻔한 결혼이라고 말렸지만 (…) 다가 온 삶의 과정을 피하고 싶지 않았”(209)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 그녀는 교통사고 트라우마에 갇힌 남편, 장애인이 된 아들을 평생 보살핀 시어머니의 내력이 자신에게 이어질 것이라는 공포와 마주하면서 다시 새로운 선택을 기획한다. 봉애가 버스 기사에게 성 욕망을 표출하는 것은 딸을 무성적 존재로 키우려던 어머니, 아내와 정신적 관계만을 원하던 남편에게 도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녀는 운동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몸을 재인식한다. 방치되었던 몸을 연민하며 다리를 쓰다듬었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에서 스스로에게 절을 하기도 한다. 이것은 장애 여성도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자 원하는 삶을 선택한 권리가 있음을 절실히 요청하는 것이다.

“여태까지 아무도 그녀의 존재를 기뻐해주지 않았다”(100) 그러나 봉애는 버스 드라이버가 자신을 장애 여성이 아닌 평범한 한 여성으로 바라본 것을 확

인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될 수 있었다. “나한테 필요한 건 꼭 한 번의 경험”(238)이라는 봉애의 절규는 장애 여성을 무성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기존 가치관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지가 함축돼 있다. “나에게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방법은, 나를 인정해 주고 사랑해 주는 것이”[31]다. 김미선에게 자기서사는 장애 존재인 자신을 부정에서 긍정으로 재인식하는 자기 돌봄의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버스 드라이버』의 많은 부분이 작가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쓰여진 것이나, 봉애와 버스 기사의 관계는 허구로 추정된다.[32] 그들은 서로 은밀한 눈빛을 나눴을 뿐 제대로 데이트도 해보지 못했다. 그럼에도 봉애가 버스 기사를 향한 성 욕망을 남편에게 굳이 고백한 후 이해받지 못하는 것으로 결말을 짓고 있다. 이는 장애 여성을 규정하는 사회적 편견이 견고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김미선의 자전적 소설은 작가의 삶을 담으면서도 ‘허구’라는 장치를 통해 그동안 표출하고 싶었던 현실 비판적 시선이 더 날카롭게 주조된다.[33] 김미선의 작품은 자기 돌봄을 지향하는 ‘자기서사’로써 가부장제에 종속된 여성의 돌봄에 저항하며, 장애 여성의 존재성을 새롭게 구성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다.

3 자기 돌봄의 인식과 취약한 존재의 상호의존적 연결 : 공선옥,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

오월 광주의 아픔을 국가의 고통으로 전유해 정신적 손상을 입은 이들을 국가의

---

31 김미선, 앞의 책, 264쪽.

32 김미선은 에세이집 『이 여자가 사는 세상』에서 장애 여성이기 때문에 ‘남자 같은 인간’으로 살려고 하거나 항상 자신의 가치를 절하하는 마음이 있었고, 애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고난했음을 고백한 바 있다. 자신의 애정사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버스 드라이버’로 짐작되는 이에 대한 이야기는 부재한다(위의 책, 51-76쪽).

33 김미선은 자신의 에세이집을 통해 어머니와 시어머니의 돌봄 방식과 가사노동을 하는 장애 아내의 삶을 비판적으로 기술하기도 하지만, 대중과 가족이 독자로 상정되면서 어머니와 남편에 대한 연민 및 감사함이 더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이와 대비해 자전적 소설 『버스 드라이버』는 ‘허구’적 요소가 가미되면서 현실 비판적 목소리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었다.

손상된 피부로 물신화하거나 장애의 치유를 국가의 회복으로 재현하는 것은 타자의 고통을 잊는 일이 된다. 역사적 사건의 아픔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가 전하는 괴로움의 이야기에 응답하는 '불가능한 방식'을 사유하는 것이 필요하다.[34] 「씨앗불」(1991) 등 오월 광주를 배경으로 한 공선옥의 소설들에는 장애 존재가 등장한다. 그런데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2013)는 비장애 존재가 자기 돌봄의 경험을 통해 장애 존재의 삶을 나의 처지와 관련지어 인식하는 양상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자기 돌봄이 서로의 아픈 이야기에 공감하고 응답하는 계기로 형상화되는 것이다.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는 1970-80년대가 배경이며, 유일하게 전기를 가설하지 못한 가난한 집 딸인 정애와 묘자가 고향 '새정지'와 '광주'를 오가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1980년 5월 광주에서의 끔찍한 사건은 등장 인물들에게 상흔을 남긴다. 고향을 떠나 광주에서 살게 된 정애는 군인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나서, 묘자의 남편 용재는 폭행 경험으로 정신적 손상이 생긴다. 그런데 '장애'는 피해자의 고통으로만 단일하게 묘사되지 않는다. 묘자의 할머니는 젊은 시절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간 남편의 행방을 물으며 시아버지를 협박하자 대창으로 자신의 눈을 직접 찔러 장애를 선택한 인물이다. 그녀는 신묘한 존재로 형상화되는데, 마을의 아이들은 주모인 묘자 할머니가 자신의 눈을 넣어 파는 술을 마시면 "안 마실 때 못 보던 세상을 다 볼 수 있다."(16)고 생각한다. 반면, 5·18의 경험으로 언어 장애가 생긴 용재는 가족을 부양하려고 술집에서 일하는 아내 묘자를 폭행한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민주 쟁취에 대해 연설하지만, 억척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내는 함부로 대하는 이중적 면모를 보여준다.

이 소설은 5·18과 같은 역사적 사건보다는 당대 국가, 마을, 가정 안에서 배제된 가장 약한 존재들의 고통을 서사화하는 데 중점을 두며,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미친 여자' 정애가 있다. 정애의 불행은 특정 한 사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장녀 정애에게 희생을 강요한 아버지 김종택, 정애를 강간한 새정지 마을의 박샌 등 수많은 공모자들이 존재한다. 즉, 폭력적 구조 속에

34 사라 아메드, 시우 역, 『감정의 문화정치』, 오월의봄, 2023, 85-91쪽 내용 참조.

서 누구나 장애를 지닐 수 있으며, 그 고통은 홀로 감당할 수 없기에 무엇보다 '돌보는 행위'가 중요해진다.

그런데 로즈메리 갈런드 톰슨은 장애인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문학에서 '모성적 자선' 모티프가 나타남을 비판적으로 설명한다. 무능하고 무기력한 몸은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이나 세력의 지배를 받는 장애물이 되며, 그러한 상황에서 타인을 도우려는 여성의 자선적 행위가 서사화된다는 것이다.[35]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도 '숙자'처럼 받을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위기에 처한 타인을 돕는 인물이 등장한다. 그런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단순히 시혜의 관계로 설정하지 않고, 연민으로 함께하게 된 이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서사가 나타난다. 영암집에서 술을 파는 숙자는 콩나물을 키우며 동생들을 부양하던 정애가 딸같이 느껴졌고, 5·18 당시 피투성이가 된 정애를 보살핀다. 그리고 자신을 우연히 찾아온 정애의 친구 묘자까지 영암집 일을 주면서 생계를 도와준다. 묘자 역시 숙자를 "그녀가 내 오랜 언니나 고모나 이모 같다고 생각했다."(114) 결말 부분에 이르러 감옥살이를 한 묘자와 그녀를 끝까지 보살핀 숙자, 그리고 생사는 알 수 없지만 여전히 묘자의 주변을 맴돌던 정애의 '목소리'는 혈연을 넘어 서로를 돌보는 관계로 형상화된다.

더욱 주목되는 점은 장애를 안고 귀향한 정애와 그녀를 돌보는 마을 사람들의 관계가 처음에는 시혜적이었지만, 어느 시점부터 상호적인 것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즉, 박샌댁을 비롯한 마을 여성들과 정애가 서로의 슬픔을 보듬는 사이로 나아간다. 이는 그동안 타인을 돌보는 의무만 수행했던 여성이 정애의 집에서 자기 돌봄을 경험하면서 가능해진 것으로 묘사된다.

자기 돌봄에 대한 인식이 응답의 서사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특히 박샌의 아내와 정애의 관계가 중요하게 형상화된다. 박샌댁은 남편이 정애의 아버지를 죽인데다가 정애까지 강간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책감, 무서움, 질투 등 여러 감정에 휩싸여 정애의 집을 방문한다. 처음에 박샌댁은 정애가 정신장애로 남편 박샌의 죄를 알지 못하는 것에 안심하지만, 점차 그런 생각을 하는

35 로즈메리 갈런드 톰슨, 앞의 책, 161-168쪽.

자신이 문제가 있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밖으로 나도는 남편 대신 고된 일을 도맡아 했던 박샌댁은 “자기도 정애처럼 그러고 흙 바람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고”(193) 싶어진다. 그동안 그녀는 남편의 폭압적인 행실에 침묵하고 집 안팎의 모든 일을 감당해낼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지 못한 채 울분을 참고 있었다. 하지만 정애의 집에서 그녀와 함께 휴식을 취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성찰하게 된다. 이후, 박샌댁은 남편에게 강간당한 정애와 아버지에게 “몹쓸 짓”을 경험한 자신의 위치를 동일시하는 각성을 이룬다.

> (…) 자네한테는 내 속에 있는 모든 말을 다 해도 안심이 될 것 같어. 그런 맘이 절로 들어가. 사람들은 자네를 미쳤다고 할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 안해. 미쳤다고 하기로 치면 자네를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미친 것은 다 한가지지. (…) 나한테도 미치지 않은 세상이 있었을까. 딸한테 몹쓸 짓을 한 아버지는 미쳤지. 아버지가 미쳤다는 것을 모른 척한 엄마도 미쳤지. 식구들 다 미쳤지. (…) 내 속의 이 큰 슬픔을 누구한테 말할까. 미친 세상에서 미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미친 거여. 미친 세상에서 미친 사람만이 미치지 않은 거여. 그래 그런 거여. 정애 자네만이 미치지 않은 사람이여. 올바른 사람이여.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 197-198쪽)

박샌댁이 자신의 비밀스러운 부분을 정애에게 고백하는 이유는 오직 그녀만이 “올바른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박샌댁은 자신을 학대한 가족과 세상에 울분을 분출한다. 또한 자녀의 불행 등을 걱정하는 마을 여자는 정애에게 자신의 속사정을 털어놓으며 위로의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정애가 마음대로 그린 그림에 부적의 의미를 부여한 뒤 고마운 생각에 그녀가 먹을 음식을 놓고 간다. 정애의 소통 불가능한 말과 그림이 경의로운 의미를 담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이때 정애의 집은 슬픔을 다독이는 ‘경배’의 공간으로 전환되며, 마을 여성들이 자기 돌봄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주체는 바로 정애다. 정애는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마을 여자들과 상호의존 관계에 있는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자 숭배해야 할 타자로 존재한다. 그래서 정애가 갑자기 사라진 일

은 미친 여자가 가출한 것이 아니라 용이 승천하는 사건처럼 묘사된다. 그리고 마을 여성들은 정애에게 "뭔가 미안하고" 자신들의 마음도 "뭔가 허전해서" 일제히 울음을 터뜨리며 그녀의 집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에서 돌봄의 능력은 '억척스러운 모성'과 같은 힘에서 나오지 않는다. 돌봄을 요청해야 할 취약한 존재인 묘자가 장애 여성 단이와 그녀의 갓난 아기를 돌보고, 성장한 단이의 아이가 장애 여성 정애를 돌보고, 정애의 목소리가 감옥에 간 묘자를 돌보면서 삶은 지속된다. 이 소설에서 돌봄의 주체는 "한결같이 너무나 힘이 없고 너무나 여린 것들"(136)이지만, 그들의 삶은 상호의존의 관계로 연결됨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이다.

캐롤 길리건은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것도 도덕적이라고 생각해야 함을 강조한다. 자신의 욕구를 직접 돌보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을 이기적이라 여기지 않을 때 관계는 의존에서 상호적인 것으로 전환된다.[36] 이때 돌봄 윤리는 "모든 이가 서로에게 응답하고 융합하여 누구도 외로이 남겨지거나 상처 입는 일이 없으리라는 비전"[37]을 제시할 수 있다. 그래서 돌봄의 주체로 상정된 박샌댁이 자신도 돌봄의 대상이 되어야 했음을 인식하는 지점이 중요하다. 그럴 때, 장애와 비장애의 위계는 해체된다. 새정지 마을의 여성들, 장애 여성 정애는 모두 똑같이 타인을 돌보는 자이자, 동시에 돌봄을 받아야 할 취약한 존재로 남는 것이다. 결국, 자기 돌봄이 가능해짐으로써 박샌댁은 정애의 개인사를 자신의 삶과 겹쳐 놓는 전환을 맞이하며, 정애는 마을 여성들의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주체로 격상된다.

이 소설은 돌봄의 주체로 상정된 여성이 '자기 돌봄'의 과정에서 취약한 자들의 존재성에 연민을 갖게 된다. 그리고 비장애 여성의 삶과 장애 여성의 삶이 공명한다. 공선옥 소설에서 자기 돌봄은 장애를 역사적 아픔으로 재현하는 한계를 넘어, 상처 입은 자들이 서로 연결되는 정치성을 도모하게 된다.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라는, 침묵 당한 이들의 서사에 귀 기울이는 물음이 '자기 돌봄'을 통해 가능해지는 것이다.

---

36 캐롤 길리건, 이경미 역, 『침묵에서 말하기로』, 도서출판푸른숲, 2021, 356-357쪽.

37 위의 책, 178쪽.

4 개인 경험의 존중과 '함께-되기'의 가능성 : 김초엽,『므레모사』

김초엽은 비장애인을 능가하는 능력으로써 대중에게 알려진 장애 영웅을 비판적으로 부각한다.「나의 우주 영웅에 관하여」(2019)에서 우주 저편으로 가기 위해 몸 개조와 훈련 과정을 버텨내는 장애 여성 재경의 모습은 대중에게 영웅적으로 비춰지나, 그녀는 미션 당일 터널로 가는 캡슐에 타지 않고 바다로 뛰어든다. 재경이 사이보그가 되는 것과 우주 저편에 가는 행위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그녀는 동양인 장애 여성에 대한 편견에 맞서 사이보그가 됐지만, 우주 저편에 도착해 장애 영웅이 되는 것은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길이 되기에 프로젝트를 포기한 것이다.[38] 장애 영웅은 장애 극복의 가능성을 확인시킴으로써 비장애인을 편안하게 하며,[39] 그러므로 영웅 되기를 거부하는 것은 치유의 당위성에 저항하는 행위가 된다.

이후 김초엽은『므레모사』(2021)를 통해 재난 지역에서 교훈을 얻는 '다크투어리즘'이 장애인을 괴기스러운 구경거리로 만드는 양상과 유사해지는 지점에 주목한다. 그리고 장애 영웅의 존재성을 성찰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장애를 관리하고 돌보는 것의 문제를 제기한다. 과거 렘차카 지역 사람들은 화재로 발생한 화학물질 때문에 죽거나 질병에 걸렸는데, 이 지역을 탈출한 사람 중 신체가 변형된 이들이 '므레모사'로 귀환한다. 이곳을 관리하는 이르슐 당국은 주민들이 겪는 후유증을 외부에 숨겨왔으나 여행지로 개방하고, 유안과 레오 등이 다크투어에 참여하게 된다. 유안은 의족에 의지해 춤추는 발레리나로, 대중은 그녀가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므레모사의 귀환자들에게 영감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결말에 이르러 유안은 다크투어에 참가한 여행객이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시혜의 주체, 동물과 비극을 관람하는 구경꾼, 장애 회복 과정을 목격하는 자'였음을 냉소적으로 비판한다. 장애를 얻은 이들은 신체가 끔찍하게 변형되었다는 점에서 격리해야 할 좀비처럼 간주된다. 이는 장르물에 등장하는 좀비를 회복이라는 사회 시스템을 거부한 장애 존재로 치환해 형상화한 것이다. 귀환

38 최병구, 앞의 논문, 287쪽.
39 수전 웬델, 앞의 책, 129쪽.

자는 구호단체들의 지원에도 치료를 거부하고 침상에서 살아가는 한심한 존재로 비춰지며, 방문객들은 “타인의 고통을 탐험”(25)하면서 자신의 삶에 일어난 비극을 희석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알려진 바와 달리 외부인을 맞이하는 일부 주민은 젊고 총명해 보이는 자로 구성되었고, 관광객은 이곳을 활력 있는 일상적 공간으로 재인식한다. 므레모사는 끔찍한 비극의 장소도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적 이미지로 관광지화되고 있었다.

장애 영웅이었던 유안은 대중이 원하는 것이 “정상에서 추락한 무용수가, 고통을 딛고 또 한 번 정상으로 오르는 이야기”(168)임을 알았고, 더이상 자신이 아름답거나 강인한 존재가 되지 못할 때의 문제를 인식한다. 그리고 자신이 ‘가만히 있는 것’을 절실히 소망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녀는 신경 의족 덕분에 비장애인에 가까운 신체 능력을 갖췄으나 환지통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안은 의족에 적응하지 않으려는 행위를 ‘상실’로 규정하는 통념에 저항하고자 한다. 그러나 타인의 불행을 소비하는 구경꾼의 시선에서, 성공한 발레리나의 삶을 포기하는 유안은 므레모사의 귀환자들과 그 존재성이 겹친다. 그들은 모두 “자기 몸을 책임지고 보듬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자신뿐인데도, 나 몰라라 하고 스스로를 포기한”(170) 장애인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재난 장소로 돌아온 귀환자와 발레리나를 포기한 유안은 삶에 실패한 자이기 때문에 ‘살아 있지만 (사회적으로) 죽은’ 좀비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런데 이 소설은 므레모사의 귀환자가 두 종류로 묘사된다. 첫 번째 귀환자는 렘차카 지역에서 화학물질 유출로 장애를 얻은 이들로 흙, 모래 먼지, 인간의 피부가 하나가 돼 나무 기둥처럼 굳어진 모습을 하고 있다. 두 번째 귀환자는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 왔던 구호기관 아델에 속한 자들인데, 갑작스러운 버스 추락으로 실종된 후 좀비와 유사하게 변한다. 이들은 지역민이 아님에도 외부에서 귀환자로 오해되는 사람들이다. 주목할 점은 사고로 오염된 땅에서 장애를 얻은 아델의 봉사자들이 나무처럼 변한 귀환자들을 돕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면은 비장애중심주의를 지향하는 의료인의 관점에서 기이한 것으로 형상화된다.

> 대피 명령을 거부한 사람들, 밖에서 살기를 원치 않았던 귀환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변화를 겪었다. 귀환자들은 변이되고 있었다. 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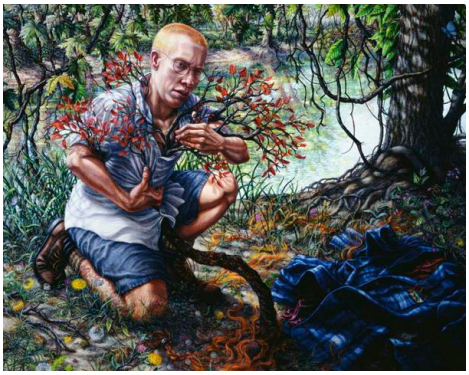
은 흉측한 외모를 갖게 되었고, 느리게 움직였고, 발성기관이 손상되어 갔다. 거의 나무와 같은 형태로 기이하게 확장되었으며 극도로 느린 물질대사와 호흡, 그리고 생활 방식을 갖게 되었다. 덜 변이된 귀환자들이 더 많이 변이된 귀환자들을 도왔다. 그런 도움이 없으면 그들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 단 한 번 므레모사에 직접 간 적이 있다. 아직도 잊을 수 없는 풍경이 떠오른다. 그곳에서 나는 놀랍고 끔찍한 것을 보았다. 움직이는 것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경배하고 있었다. (『므레모사』, 174-175쪽)

요컨대, 이상적인 의료적 돌봄이란 의료 봉사자가 장애인을 완치시키고자 하며, 장애인은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정상적 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므레모사의 장애 존재들은 비장애인의 시선에서 괴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다크투어에 참가한 레오 역시 구호기관 아델에 속했던 동료를 구출하고자 했으나 불가능함을 깨달은 후, 그곳을 불태워 비극을 끝내고자 한다.

그러나 이 소설은 이러한 의료적 관점이 얼마나 끔찍하게 타자를 경시할 수 있는지를 경고한다. 레오는 므레모사를 몰래 조사할 시간을 벌려고 일부러 유안의 의족을 쳐서 다른 이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는 등 여러 번 폭력을 행사한다. 그에게 유안의 '기계 다리'는 존중받아야 할 인간의 몸이 아니었다. 위의 인용문에서 의료인이 귀환자를 치료하겠다는 선한 목적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그들을 기이한 타자로 간주했던 것처럼, 레오 역시 누군가를 구출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유안은 함부로 대했다. 봉사자들이 장애 존재의 개인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구경적으로 대상화하게 되면, 그들은 결코 존중받을 수 없다.

주목할 점은 유안이 '자기 돌봄'을 위해 장애를 선택하면서 므레모사는 다크투어리즘에서 테라폴리스의 장소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유안은 므레모사의 플랜트를 불태우려는 레오를 죽인 후, 귀환자들에게 당신처럼 되고 싶으니 부디 자신을 받아달라고 요청한다. 해러웨이는 근대 인간중심주의와 상반되는 것으로서 '테라폴리스'라는 n차원의 틈새 공간을 이야기한 바 있다. 여기서 모든 존재는 부식토로서의 '퇴비'다. 테라폴리스는 존재와 존재를 잇는 "너무나 많은 연결"의 가능성이 있기에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응답-능력"을 키워야만 한다.[40] 해

러웨이는 퇴비라는 비유를 통해 탈인간중심주의 경향으로서의 포스트휴먼을 넘어 인간과 비인간을 잇는 새로운 차원의 존재론을 구축했다. 인간도, 동물도, 흙도 모두 퇴비이며, 퇴비는 종을 초월해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함께 되어가는 존재이다."[41]



[그림 1] 리바레러, 「선회하는 이야기/일라이 클레어」, 2003.

테라폴리스로서의 므레모사에는 연결을 기다리는 수많은 존재가 있으며, 연결 안에서 서로 혼합되는 과정을 거친다. 모두가 퇴비이기에 봉사자와 장애인이라는 시혜적 관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고목과 유사하게 변형된 귀환자들은 그곳의 오염된 자연과 '함께-되기'를 한 존재들이다. 좀비처럼 변한 구호단체 아델의 사람들도 귀환자의 "떠나지 마"라는 요청에 응답한 이들이다. 처음에 아델 사람들의 방문 목적은 장애인을 회복시키는 것이었는데, 그들의 지향점은 귀환자들이 원하는 바와 합치될 수 없었다. 그런데 버스 추락 사고 이후 아델 사람들은 고목처럼 변한 귀환자의 바람을 존중함으로써 그들과 연결된다. 이때 고목과 유사하게 변형된 귀환자는 장애인이 아니라, 타인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주체로 남게 된다.

이러한 므레모사의 풍경은 리바 레러의 「선회하는 이야기」[42]를 연상시킨다. 엘리슨 케이퍼는 이 그림에서 사람과 식물은 쉽게 구별되지 않으며, 인간은 자연과 분리될 수 없는 일부분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뇌병변 장애인 클레어는 장애를 치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몸을 땅에 접지시키기 위해 자연에 접속한다. 여기에는 인간이 어떻게 지구, 뼈, 몸과 함께 잘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나타난

40 도나 해러웨이, 최유미 역, 『트러블과 함께하기』, 마농지, 2021, 24-25쪽.

41 이현재, 앞의 논문, 40쪽.

42 일라이 클레어는 선천적 뇌병변 장애인이자, 스스로를 남성이나 여성, 둘 중 하나로 규정하지 않는 젠더퀴어이고, 친족 성폭력 생존자이며, 페미니스트이다. 그는 수많은 소수자성이 교차하는 몸을 지니고 있다(손희정, 「차별금지법은 말한다 "동정에 오줌을 갈겨라"」, 『한국일보』, 2020.07.24., 18면).

다. 퀴어적 몸을 지닌 이들을 위한 공간을 개척하면서 새로운 자연-인간 관계의 이미지를 불러오고 있다.[43]

새로운 관계의 이미지는 『므레모사』에도 나타난다. 유안은 나무 기둥과 같이 변한 귀환자들을 직접 본 후에야 그들이 재난 지역을 떠날 수 없었던 이유를 실감한다. 귀환자는 이미 므레모사의 오염된 자연의 일부분이 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치유를 위해 '좀비'로 불리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다. 좀비처럼 된 자들이 자연과 혼합돼 움직일 수 없는 이들을 돕는 것은 서로 잘 지내기 위한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다. "쭈글쭈글한 나무 표피 가운데에 사람의 얼굴이 박혀 있"(163)는 귀환자의 모습은 타인의 경험을 존중하며 관계 맺는 '함께-되기'의 풍경이 은유적으로 형상화된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기존의 장애/비장애, 인간/비인간의 위계를 전복시킨다.

유안이 지향한 "자기 돌봄은 세상이 돌볼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나 자신의 삶을 잊지 않는 것이며, 우리의 연약한 공동체 속에서 여전히 우리 각자의 "산산조각난 경험"을 중요한 것으로 만드는 실천들을 의미할 것이다."[44] 귀환자는 므레모사를 벗어나서는 원하는 삶을 영위하기가 힘들며, 유안은 환지통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하다. 귀환자와 유안의 개인적 경험은 중요한 것이며, 그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은 존중돼야 한다. 유안은 귀환자에게 "당신들을 선망해요"(182)라고 말하면서, 진정한 평온을 얻기 위해 므레모사의 연약한 공동체에 합류한다. 그리고 자기 돌봄을 실천하는 유안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귀환자와 장애 존재가 연결되는 '함께-되기'의 가능성을 만들어냈다.

5 결론: 장애 관념의 재구성과 존재 간의 연결을 위하여

이 연구는 그동안 무성적 대상, 역사적 고통이 은유화된 몸, 비극의 장소로 규정된 장애의 문학적 재현을 비판하기 위한 인식틀로서 '자기 돌봄'에 주목했다. 그리고 2010년대 이후 장애 여성 소설에서 비장애중심주의를 전복하는 서사가 형

43 앨리슨 케이퍼, 이명훈 역, 『페미니스트, 퀴어, 불구』, 오월의 봄, 2023, 367-369쪽.
44 이연숙, 앞의 글, 212쪽.

상화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SF 소설을 중심으로 장애 문제가 연구되어온 것에서 더 나아가 페미니즘 리부트 전후로 김초엽 외에도 김미선과 공선옥의 작품이 존재했음을 주목했다. 이들 소설은 사회로부터 존중받지 못한 개인적 경험과 감정을 중시하고, 관계 내의 존재가 모두 돌봄의 대상이 돼야 하며,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주장하는 '자기 돌봄'의 윤리가 나타난다. 본고에서는 장애 관념을 재구성하고, 존재 간의 연결을 가능케하는 자기 돌봄의 양상을 다음의 세 측면에서 분석했다.

첫째, 김미선은 자전적 소설인 『버스 드라이버』에서 '가부장제에 종속된 여성의 돌봄'이 장애 여성에게 '혼자 사는 법'을 가르치는 무성적 대상화를 지향하거나, 장애 남성을 생산적 노동자로 성장시키는 대리 치유의 면모가 있음을 비판한다. 여주인공 봉애가 "나한테 필요한 건 꼭 한 번의 경험"이라며 장애 여성의 성 욕망을 도발적으로 표출하는 것은 기존 가치관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개인의 감정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발화하는 자기서사를 통해 가부장 질서에 종속된 돌봄을 비판하고, 장애 여성을 부정에서 긍정의 존재로 재구성하고 있다.

둘째, 오월 광주를 배경으로 한 공선옥의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는 새정지 마을 사람들과 장애를 안고 귀향한 정애가 시혜적 관계로 묘사된다. 그러나 돌봄의 주체로 상정된 박샌댁이 나 역시 돌봄의 대상이 돼야 했다는 자기 돌봄을 인식하면서 자신과 장애 여성 정애의 존재성을 연결하게 된다. 박샌댁을 비롯한 마을 여성들은 정애의 집에서 자신의 불행을 위로받는다. 그리고 자신을 돌보는 경험을 통해 상호의존 관계로 얽힌 마을 여성 공동체를 만들어간다. 그동안 5·18을 배경으로 한 소설은 장애가 역사적 고통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매개로 제한되는 경향성이 있었다. 그러나 공선옥의 소설은 자기 돌봄을 기반으로 서로의 고통에 응답하는 관계를 구축한다. 이때 장애 여성은 침묵 당한 타자의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주체로 격상된다.

셋째, 김초엽의 『므레모사』는 장르물에 등장하는 좀비를 '회복'이라는 의료적 지향을 거부한 장애 존재로 치환해 서사화한다. 의족에 적응하는 것을 포기한 발레리나 유안은 화학물질이 유출된 재난의 장소인 므레모사에서 치료를 거부한 귀환자처럼 삶에 실패한 존재로 간주된다. 그러나 유안은 환지통 때문에 '아무

것도 하지 않는' 평온을 바라며, 귀환자는 신체가 고목과 같은 모습으로 변형되면서 오염된 자연의 일부가 된 상태였다. 장애 여성 유안은 자기 돌봄을 실천하는 한 방식으로써 므레모사의 귀환자 공동체에 합류하며, 비인간과 인간이 연결되는 '함께-되기'를 지향한다. '함께-되기'는 서로의 바람에 응답하는 관계 맺기의 과정이며, 이때 장애와 비장애의 위계는 해체되고, 폭력적 치유 논리가 비판된다. 장애 존재가 '정상적 몸'에 대한 사회적 기준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상황이 존중돼야 함을 역설하는 작품이다.

2010년대를 관통했던 가장 중요한 사회운동 중 하나인 "페미니즘 리부트가 거부했던 것은 전시대의 방식으로 오늘의 문제를 봉합하려는 시도이다."[45] 기존의 가부장적·자본주의 가치에 포섭된 돌봄만으로는 비장애중심주의에서 제기되는 사유를 전환시킬 수 없다. 지금까지 분석한 2010년대 이후 김미선, 공선옥, 김초엽의 소설은 '자기 돌봄'을 주목하고, 장애 존재를 새롭게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자기 돌봄을 실천하는 행위는 사회가 경시했던 존재를 경배의 대상으로 만들며, 개인의 경험을 소중하게 인식함으로써 타인의 이야기에 더 잘 응답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자기 돌봄은 보편적으로 여겨지는 잘못된 가치를 역전할 수 있는 정치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기본 자료

공선옥,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 창비, 2013, 7-260쪽.

김미선, 「집으로 돌아오는 날」, 『문학사상』, 1997.2., 193-218쪽.

_____, 『이 여자가 사는 세상』, 나무의 꿈, 2005, 13-309쪽.

_____, 『버스 드라이버』, 개미, 2013, 7-240쪽.

김초엽, 「나의 우주 영웅에 관하여」,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허블, 2019, 273-319쪽.

_____, 『므레모사』, 현대문학, 2021, 9-183쪽.

45 류수연, 앞의 논문, 39-40쪽.

단행본

김은정, 강진경·강진영 역, 『치유라는 이름의 폭력』, 후마니타스, 2022, 63쪽.

김은희, 「캐롤 길리건-정의 윤리를 넘어 돌봄 윤리로」, 『현대페미니즘의 테제들』, 연구모임 사회비판과대안 공저, 사월의책, 2016, 130-132쪽.

Ahmed Sara, 시우 역, 『감정의 문화정치』, 오월의봄, 2023, 85-91쪽.

Alison Kafer, 이명훈 역, 『페미니스트, 퀴어, 불구』, 오월의봄, 2023, 367-369쪽.

Caral Gilligan, 이경미 역, 『침묵에서 말하기로』, 도서출판푸른숲, 2021, 178쪽, 356-357쪽.

Donna J. Haraway, 최유미 역, 『트러블과 함께하기』, 마농지, 2021, 24-25쪽.

Michel Foucult, 오트르망 심세광·전혜리 역, 『비판이란 무엇인가? 자기수양』, 도서출판 동녘, 2016, 114-115쪽, 123쪽.

Rosemarie Garland Thomson, 손홍일 역, 『보통이 아닌 몸』, 그린비, 2015, 55쪽, 161-168쪽.

Susan Wendell, 강진영·김은정·황지성 역, 『거부당한 몸』, 그린비, 2013, 93, 129쪽.

논문

김미현, 「2010년대 여성소설에 나타난 '자기 돌봄'의 윤리」, 『한국문예비평연구』 63권,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9, 63-90쪽.

김성희, 「돌봄의 선언과 자기돌봄-돌봄 이론의 정치적 전회와 비판이론의 윤리적 전회」, 『비교문학』 89권, 한국비교문학회, 2023, 59-88쪽.

김세령, 「한국 장애인 문학의 새로운 지평-김미선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59호, 현대소설학회, 2015, 217-255쪽.

김효숙, 「공선옥 소설의 노래 수용과 자아발현 양상 고찰-『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를 중심으로」, 『비평문학』 제62호, 한국비평문학회, 2016, 77-104쪽.

류수연, 「돌봄과 노동의 경계에 선 '엄마', 다시 읽는 공선옥」, 『비교한국학』 29권 1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21, 37-64쪽.

박혜숙, 「여성 자기서사체의 인식」, 『여성문학연구』 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7-30쪽.

안서현, 「여성 SF가 사유하는 돌봄의 익숙한 미래」, 『여성문학연구』 57호, 여성문학학회, 2022, 281-303쪽.
이연숙, 「‘퀴어-페미니스트의 ‘돌봄’ 실천 가이드’를 위한 예비적 연구」, 『문학동네』 29, 2022, 200-217쪽.
이지훈, 「한국 5·18소설의 장애 재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1-176쪽.
이현재, 「도나 해러웨이의 포스트휴먼 페미니즘과 난잡한 돌봄 공동체」, 『한국여성철학』 제37호, 한국여성철학회, 2022, 27-60쪽.
장영은, 「근대 여성 지식인의 자기서사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1-217쪽.
전지영, 「장애예술과 장애인예술의 개념 논의-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연구』 제32호, 2021,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195-125쪽.
최병구, 「김초엽 소설에 나타난 테크놀로지와 시간정치」, 『인간·환경·미래』 제29호,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2022, 269-295쪽.
홍단비·심재욱, 「김유정 문학의 자기 서사와 자기 돌봄의 윤리」, 『비평문학』 제90호, 한국비평문학회, 2023, 421-451쪽.

기사

손희정, 「차별금지법은 말한다 “동정에 오줌을 갈겨라”」, 『한국일보』, 2020.07.24., 18면.

Abstract

The Politics of Self-Care in Novels about Disabled Women since the 2010s
: Focusing on Kim Mi-seon, Gong Seon-ok, and Kim Cho-yeop

Park, Chanhyo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at novels about disabled women by Kim Mi-

seon, Gong Seon-ok, and Kim Cho-yeop, which appeared before and after feminism reboot in the 2010s, go beyond the existence of disabled women, who were defined as an asexual object, a body containing historical pain of the nation, and a place of tragedy, by pursuing 'self-care.' Here, self-care is different from self-development or narcissism. Self-care means to take care of one's own desires that is not respected by society, requiring oneself to be the object of care within the relationship, and choosing a way of life for oneself out of the state or social care system. Therefore, it is the basis for transforming existing thinking about disability and building a community of fragile care.

Self-care has a political nature that transforms the existing non-disability-centric thinking to respect vulnerable individuals. First of all, in her『Bus Driver』, Kim Mi-seon criticizes the 'feminine care' that turns a disabled woman into an asexual object and develops a disabled man into a capable worker. Resistant self-care appears in the sense that self-affirmation is achieved against the limitations imposed on disabled women based on 'self-narrative'. In the "Where did that Song Come from" by Gong Seon-ok, disability and non-disability break away from the benevolent relationship as a non-disabled woman, who is assumed to be the subject of care, recognizes that she also need to be an object of care. As self-care becomes possible, vulnerable beings become interdependently connected, and as a result, a disabled woman becomes both a member of the village women's community and other person to be worshiped. Lastly, Kim Cho-yeop's novel, "Mremosa" emphasizes that we must respect the way of life that disabled people choose based on their personal experiences. In this novel, by practicing self-care, non-humans and humans are connected, and 'becoming-together', forming relationships so that they can get along well with each other, becomes possible. In this way, the hierarchy between disabled and non-disabled was dismantled, and the logic of violent healing could be criticized.

Key words: disabled women, self-care, self-narrative, interdependence, becoming-together, Kim Mi-seon, Gong Seon-ok, Kim Cho-yeop

논문제출 / 2024.03.13.
논문접수 / 2004.03.16.
게재확정 / 2024.04.04.